

무솔리니 애첩 마그리트 사파티

필립 카니스트라로 외 지음 「총통의 여자」

배병삼

경희대 강사·정치학



1929년의 사파티. 작은 사진은 같은 시기의 무솔리니와 그의 가족들.

마그리타 사파티(Margherita Saffati)라는 이름은 아마도 오늘날 이탈리아에서는 거의 잊혀졌지만 1920년대 및 30년대 초반의 이탈리아 정치인과 지식인들 사이에는 무솔리니의 불굴의 이미지를 제작한 사람으로 익히 알려졌던 이름이다. 필립 카니스트라로(Philip V. Canistraro)와 브라이언 설리반(Brian R. Sullivan)이 사파티가 무솔리니의 애첩으로 19년동안 생활하면서 주고 받았던 1200여통의 편지들을 발견하고 그녀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여 이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이 「총통의 여자」(『IL DUCE'S OTHER WOMAN』, 685 pp. New York: Willam Morrow & Company)이다. 이 책은 지난 1991년 「출판저널」(제105호)을 통해 소개했던 그라지아 교수의 「파시즘의 여성 지배」(『How Fascism Ruled Women』)를 읽어 본 독자라면 더욱 이해하기 쉬우리라 믿는다. 그라지아 교수가 “놀라운” 여성으로 묘사했던 사파티는 부유하고 아름다운 중상층 출신의 사회당원으로서 로마

의 예술가들 및 지식인들 사이에서 명사로 알려졌을 뿐 아니라 루스벨트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차를 나누기도 한 인물로 해외에도 널리 알려졌던 여성이다. 그녀는 또한 여권론자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유태인이었다는 점에서 파시즘의 교의와 배치되는 사람이기도 했다.

그녀는 1880년 베니스에서 태어나 러스킨의 철학에 매료되어 사회주의에 빠져들었다. 작가 가브리엘 다눈찌오와 안토니오 포가짜로는 젊은 시절의 단짝이기도 했다. 그녀는 변호사인 세자르 사파티와 결혼하였는데 남편 역시 유태계로서 아내를 좇아 사회주의로 전환하였다. 그후 이들 부부는 밀라노로 옮겼으며 여기서 사파티는 러시아에서 파견된 사회주의자 안나 콜리시오프와 이탈리아 노동당수이자 여권운동의 기수였던 필리포 툴라티에게서 깊은 감화를 받는다. 그녀는 사회주의자들의 대변자인 「아반티」에 페미니즘과 예술에 대한 칼럼을 썼고 뛰어난 글솜씨로 예술평론가로서 대접받기에 이르렀다. 상징주

의, 포지티비즘, 미래주의 그리고 디비저니즘 등 예술사조가 파도처럼 밀려오던 당시에 그녀는 작품들 하나하나에서 어떤 사조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또박또박 지적해낼 만큼 감식력이 높았다고 저자들은 전한다.

사파티가 무솔리니를 처음 만난 것은 1912년. 무솔리니가 「아반티」紙의 편집장이 되었을 때였다는데, 그녀는 첫 대면에서부터 모든 면에서 반대된다는 점에서 그에게 호감을 느꼈다고 전한다. 당시 무솔리니는 너절한 차림새에 이끌거리는 눈매, 그리고 열등감으로 광포하기조차 한 야성의 사내였다. 무솔리니 쪽에서는 사파티가 교활하고 탐욕스러우며 기분나쁜 여자로 보였다고 한다. 1883년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난 무솔리니는 예술에는 문외한이었고, 지배계급과 왕정, 그리고 교회에 대한 강렬한 적대감을 가지고 폭력혁명으로 사회를 들어엮어야겠다고 작정한 사람이었다. 민주주의란 애초에 걸간 번지르르한 속임수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던 터

였다. 다눈찌오와 마찬가지로 그는 초인에 대한 숭배가 대단했는데 이 점이 사파티의 마음을 이끈 실마리였다. 그녀는 1913년 무솔리니의 여러 여자들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현재 필라델피아 드렉셀 대학에서 정치사를 가르치고 있는 저자 카니스트라로와 워싱턴의 국방대학 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인 설리반에 의해 촘촘히 연찬된 이 책은 전기라기보다는 무솔리니 정치사상의 변천을 추적하는 데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그 가운데 특히 여태 발굴되지 못했던 자료들을 한껏 인용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의 값을 더한다.

무솔리니의 정치관은 권력에의 욕구가 점차 충족됨에 따라 급격히 변화하였다. 사파티 역시 권력에의 욕구가 만만치 않았다. 한번 거머쥔 권력은 점차 더 큰 권력을 요구하게 마련이었고 그녀는 이 욕구에 빠져 무솔리니의 품안을 더욱 깊이 파고 들었다. 하긴 1914년 무솔리니가 사회주의의 평화노선을 내팽개치고 1차대전에서의 참전을 결정했을 때는 사파티로서 전폭적인 지지를 보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용케 연합군을 선택한 행운으로 이탈리아는 승전국이 되었다. 그녀의 17살배기 아들은 이 전쟁에서 ‘기묘한’ 영웅적 행위로 전사했는데 이것이 무솔리니의 “의무, 헌신, 그리고 애국심”이라는 구호에 ‘기묘하게’ 맞아떨어졌다. 그 죽음은 애국의 상징인양 받아들여졌고 병사의 어머니인 사파티는 무솔리니의 위로를 받게 되었다. 결국 1918년에 들어 사파티와 무솔리니는 육체적 관계를 맺게 되었다.

사파티는 예술의 정치적 용도를 그에게 주지시켰다. 그들은 함께 위대하고 새로우며 강력한 이탈리아 제국의 건설에로 치달게 되었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르즈와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솔리니에게 인지시킨 것이 사파티였다. ‘아리디티’라 불리던 특공부대원들을 위시한 전쟁 베테랑들을 주위에 끌어들이도록 권고한 것도 그녀였고, 정당이 아닌 산업계, 전문직업인, 그리고 재벌들의 조합에 의해 이탈리아를 끌고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도록 충동질한 것도 그녀였다. 이제 사회주의자들 사이에서 이 둘은 사이비 공

산주의자요 위험한 모반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여기서 파시즘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후 수년간 테러, 무력충돌, 암살 등의 혼란을 겪고난 후, 무솔리니가 거리낌없이 “내 휘하에 40만의 무장군이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은 1921년 말이었다. 그동안 사파티는 월간지를 내면서 무솔리니의 정책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정치잡지였지만 예술과 문학 그리고 종교란은 빠짐없이 끼어 있었다.

무솔리니가 국가의 총통이 된 이후 사파티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한동안 그들은 “달콤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물론 무솔리니의 저택 다른 방에는 또다른 여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한동안 그녀는 파시즘의 문화통치자로 불려졌고 그녀 역시 그런 명성을 달갑게 여겼다. 그녀는 문화계에 순수한 이탈리아적 파시스트를 배양하는 운동을 펼쳤으며 그 일환으로 베니스 비엔날레의 위원회를 조직하고 1920년대와 30년대 파리 국제 박람회의 이탈리아 전시관을 조직하는 데 깊숙히 관여하기도 하였다. 로마에 있던 그녀의 살롱은 들뜬 지식인들, 고위 당료들, 그리고 젊은 예술가들로 북적거렸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울고 꽃도 피면 지는 법. 1930년대 초반 무솔리니는 사파티의 오만함과 주제넘는 것에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아내를 몰론이고 딸 에다 시아노가 그녀를 싫어했던 것은 당연한 일인가까운 것이고, 게다가 사파티의 몸매가 뚱뚱해진 것도 이즈음이다. 무솔리니가 여성의 복종을 강조하고 전사를 길러내는 가정주부의 역할이 여성의 임무라고 주장했던 그즈음이다. 그녀의 문화정책이 “헛되고 거짓된 것”이라는 반격이 무솔리니에게 들어오는가 하면, 히틀러의 측근으로부터는 위협할 것 같다는 귀뜸도 받았다. 그 와중에도 1934년 미국을 순회하면서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파시즘의 역사성을 선양하고 무솔리니를 찬양했던 그녀는 미국 언론으로부터 “이탈리아의 여류명사”라는 칭호를 받았지만 귀국한 사파티가 들었던 것은 “미국, 그 따위게 뭐야!”라는 무솔리니의 대갈 일성 뿐이었다.

더군다나 반유대인 정책이 이탈

리아에서도 시행되자 그녀는 이탈리아를 떠날 수밖에 없다고 결정한다. 1939년 우루과이에 정착한 그녀는 무솔리니를 문화에는 무지몽매하며 지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위험천만한 인물이라고 비난을 퍼부은 「내가 아는 무솔리니」라는 책을 집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차대전이 끝난 후 귀국하였을 때 그녀의 인생유전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친교를 맺었던 내로라던 사람들의 발길은 자취도 없었다.

신보수파 미국 디자이너의 '좋은' 디자인論

폴 랜드(Paul Land)는 미국 그래픽 디자인계의 거장이다. 1930년대부터 몸담아왔던 이 분야에서 그는 「에스콰이어」紙를 위시한 유수한 잡지의 아트디렉터로서, 그리고 다수의 광고 및 디자이너로서 명망을 축적해 왔다. 1954년 그는 당시 IBM의 광고 책임자였던 엘리엇 노이에스의 눈에 띄어 지금도 눈에 익은 IBM社의 로고를 제작하였다. 이 작품은 차후 다른 회사들의 귀감이 되어 이른바 '시각 이미지 통일화 작업'(VI: visual identity)을 촉

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이러한 디자이너로서의 명성을 토대로 1956년 이래 최근까지 예일대학의 유수한 교수로서 재직해왔다.

랜드 교수는 내내 그래픽 디자인계의 대부요 대변인으로서 구실해왔다. 그는 여태 수 권의 책을 간행해 왔지만, 아마도 최근 상재한 「디자인, 형태 그리고 카오스」(DESIGN, FORM, AND CHAOS, 218 pp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야말로 일반 독자들을 위한 디자인 해설서로서 가장 적절한 책으로 여겨진다. 물론 이 책속의 몇 편의 글은 이전의 디자인 전문잡지에 기고한 것을 재록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두 일반독자들의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의도 속에 포섭된다.

그는 디자인의 질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견지한다. 좋은 디자인이란 정립된 공식적 기준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디자인을 "대상을 가장 축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든 고려사항 중 가장 우선해야 할 작업"으로 정의한다. 그는 이런 관점을 현대예술에 관한 학습을 통해 획득했다고 한다. 그는 클레, 칸딘스키를 위시한 유럽 모더니즘 미술가들의 작업에 눈길을 돌린 선구적인 미국 디자이너 가운데 한 사람이다. 이러한 예술가들에 자극 받아 랜드는 스스로 디자인의 제요소라 일컫는 스케일, 크기, 형태,

색깔, 가치, 구성과 중량감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었으며 이들을 강력한 추상적 콤포지션의 내용으로 이겨넣어 촘촘한 배열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에게 디자인이란 단순한 '일거리'가 아니라 일종의 '신들림'(calling)이다. 디자이너의 작품이 순수 미술가의 작품들처럼 미술관의 성전에 존치되지는 않지만 디자이너들의 작품은 "출생신고서로부터 광고판에 이르기까지" 포괄하는 시각적 커뮤니케이션의 총화라는 것이다. 저자는 이러한 디자인들이야말로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시각적 즐거움을 생활화하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좋은 디자인이란 직관과 정제된 질서로 이루어진다면, 이와 반대로 덜 갠 대중들의 눈길을 끄는 것에만 신경쓰는 것은 나쁜 디자인이라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디자인, 형태, 그리고 카오스」는 사실 랜드가 아름다운 형태를 창조해내는 능력을 마음껏 과시한 예시들이기도 하다. 입으로 하는 이야기처럼 시각적으로 그는 말하고 있다. 그래픽 하나하나를 濃淡과 다양한 색채로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으며 시원시원한 공간과 함께 적절한 그림의 배치로 그의 메시지가 환히 전달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신념에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추호도 용서치 않는다. 그의 이런 자

세와 "이 세상에서 알려진, 그리고 생각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상의 것"이 우리 문명이라고 말했던 매슈 아놀드는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러한 자세는 서구 전통의 우월성을 믿어 의심치 않는 신보수파들의 오랜 외침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신보수파들이 인간에 대한 새로운 묘사와 접근을 꾀해 보지 않듯 랜드도 오늘날 디자인 교육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접근방법을 참



을 수 없어 한다. 이 책속에 가장 찬반이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 논문 「카산드라로부터 카오스로」에서 랜드는 "소위 '새로운' 그래픽 디자인 이론가"들을 비난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도이다. 목표는 '무엇이 새로운가'(new)가 아니라 '무엇이 좋은 것인가'(good)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랜드는 오늘날의 그래픽 디자인은 유행과 패션의 산물이라고 통박한다. 그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의 일단을 디자인학교에서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토론을 도입한 데서 찾는다. 그는 이 경향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사회적 이슈는 결코 미학적 이슈가 될 수 없다. 사회적 이슈는 전혀 미적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이다"고 목청을 돋운다. 물론 요즘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이런 주장이 제대로 먹혀들지는 의문이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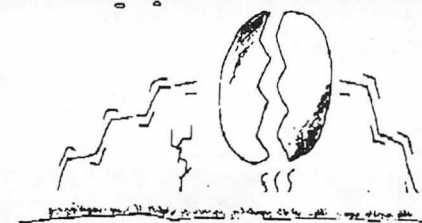
그러나 그의 목소리가 신보수파의 구닥다리로 여겨질 것이라는 우울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디자인 학과의 교육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나 챙기면서 기본적인 드로잉을 위시한 기초를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은 귀기울일 부분이다. 특히 근래의 컴퓨터를 통한 손쉬운 영상언어는 그래픽 디자인의 기초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것이라는 경고는 꼼꼼히 생각할 일이다. 찬반 여부에도 불구하고 그의 빼어난 「디자인, 형태, 그리고 카오스」는 산업사회에 디자인의 선봉이 몰아친 지 오래된 지금 디자인계의 전문가만이 아니라 산업계의 종사자들과 더불어 일반독자들과 함께 읽어봐야 할 책이다.

능력 있는 영업사원을 모집합니다.

본 사는 한국학 전문도서 출판업체로서 25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번에 사세확장에 따라 전문 지식인들에게 지식을 전달할 참 문화사업에 동참할 영업사원을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다 음

1. 자격: 고졸 이상으로 출판 영업에 뜻이 있고, 책임감있게 일할 수 있는 분(남자는 병역필, 경력자 우대)
2. 채용인원: ○ 명
3. 구비서류: 1) 자필 이력서 1통
2) 자기 소개서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3) 자격증 사본(소지에 한함)
4. 기 한: 1993. 5. 31까지 도착한 분에 한하고, 면접은 서류심사 후 개별 통지.
5. 보내실 곳: 서울 중구 장충동 1가 48-24
아세아문화사 (279-8161~3)



■ 독서계의 흐름과 출판계의 이모저모로 이채롭게 꾸며,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엮은 합철본을 새로 제작, 한층 자료가치를 높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 합본1호(날권1~10호) 5,000원(판매)
- 합본2호(날권11~20호) 5,000원(판매)
- 합본3호(날권21~30호) 5,000원(판매)
- 합본4호(날권31~40호) 5,000원(판매)
- 합본5호(날권41~50호) 5,000원(판매)
- 합본6호(날권51~60호) 9,000원(판매)
- 합본7호(날권61~70호) 10,000원(판매)
- 합본8호(날권71~80호) 10,000원(판매)
- 합본9호(날권81~90호) 10,000원(판매)
- 합본10호(날권91~100호) 10,000원(판매)

* 구독의 불편·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전화·서신등을 통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료는 합본제작비로 인해 수취인 부담관계로 직접방문, 구입하시면 유리합니다.